기원전부터 시작된 전법의 역사

해외불교칼럼

불교는 기원전 약 2세기부터 서양 포교에 나서며 유럽 등지의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사진은 2세기경에 제작된 부처님의 초전 법륜상. 간다라미술로 라호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기원전 약 2세기부터 서방으로 떠난 불교의 전법사절단은 명실공히 동서 대화합의 메신저였다. 알렉산더의 창검으로 피바다가 된 유라시아 남부루트가 이제 선근공덕 회향의 길로 닦인 것이다. 공존과 원융을 가르친 서방전법사절단은 먼 훗날 15세기 이후 복음전파니 선교니 하며 지구촌 곳곳에 적개심과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국제해양조직폭력배와는 본디 '씨알'부터 다르다. 예컨대, 그 식민지침탈의 앞잡이들이 중남미전역에서 저지른 집단강간은 메스띠소라는 거대 혼혈인종의 출현과 가족질서파괴라는 처참한 상처를 남겼다. 이는 분리수거조차 불필요한 그 인간오폐물들이 지닌 과대망상적인 선민의식과 추악한 위선의 찌꺼기 중 하나다.

소위 십자군전쟁이란 집단히스테리 이래 줄곧 필살의 광기를 번뜩이는 숱한 '종교전쟁', 그리고 포그럼과 홀로코스트라는 대량학살은 지금껏 보스니아, 중동 등지에 되풀이된다. 불교는 전법하던 안하던 언제 어느 곳에서도 신앙을 빙자한 야수적 만행을 자행한바 없다. 최근 들어 동서양의 석학과 지식인들이 공히 인정하듯, 불교는 고매한 '종교외교'를 통해 연기상생(緣起相生)의 이상과 자비희사의 실천철학을 두루 펼쳐왔다.

그리스-인도불교의 전법사절단은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인도에 통일제국을 형성한 아소카대왕의 제위 시 더욱 체계화됐다. 그는 사절단들이 지중해연안의 알렉산더 제국의 복속지역까지 친선 전법하도록 칙령으로 하달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 계와 여러 속국 출신으로 다국적 전법사절단들을 구성하여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누스 왕에 보냈다. 그리고 현 알바니아에서 발칸반도의 여러 왕국들을 경유, 아프리카북단의 리비아와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 등에게도 공식 파견했다.

아소카 대왕의 위대한 전법공덕을 기리는 기념비들은 아직도 일부 남아있으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에서는 법륜이 조각된 묘비도 발굴됐다. 또한 소승불교인 테라베다, 즉 당시 그리스어 음역으로 테라페우테라 일컫는 불교교단의 사원들이 설립됐던바, 로버트 린센 등 관련 석학들은 그 불교시설들이 후일 기독교전파의 거점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원전 1세기 경 그리스속령이던 유태왕국의 자나에우스 왕이 법륜을 새긴 왕관을 머리에 쓴 주화가 현지에서 출토됨으로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현 이스라엘 일대도 불법의 영향권에 들었음을 명증하는 것이다.

당대의 현지정황을 잠시 돌아보자면, 유태교는 외세에 편승한 두 세력으로 크게 나뉘었다. 그 하나가 현재의 점령자인 그리스 세력에 빌붙은 사두게 파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점령자인 페르시아 세력에 붙었다가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제국을 멸망시키자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되고만 바리새 파였다. 참고로, 바리새란 낱말은 파르시, 즉 페르시아를 누군가 괴상하게 우리말로 옮긴 것이지만 읽는 이들의 편의상 그대로 쓴다.

아무튼 이 두 파는 기원전 63년, 이번엔 로마제국이 유태를 점령할 때까지 서로 물고 뜯는다. 기독교사의 신빙성을 전제하건대, 이는 예수가 태어나기 불과 6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두 파의 틈새에 낀 것이 미미한 제3세력인 에세네파였다. 금욕절제와 중립온건노선을 택한 그들은 정복과 교역루트를 통해 유태 땅까지 들어온 불교의 영향을 이전부터 적잖게 받은 데다, 이젠 왕관에 법륜이 새겨질 만치 불연이 유태 땅에 더욱 깊어진 것이다. 따라서 에세네파 성향의 예수가 불법의 영향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는 것이 저명한 비교종교학자인 드와이트 고다드 등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의 탐구저서인 '예수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나?'에 대한 답변은 자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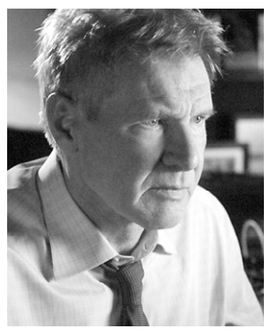
지중해 권역과 그리스-인도불교문화권의 교류는 5세기 헬탈족 등의 침략으로 약화된 후, 8세기 전후 이슬람세력이 대거 동진함으로서 거의 차단된다. 그러나 그리스-인도계의 정치적 독자성은 10세기까지 유지되며, 인종과 문화적 잔재는 지금껏 인도 북서부 오지에 남아있다. 기원전의 지중해 연안전법 당시, 로마제국에도 불교가 전해졌으나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 오늘날의 서구전법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 단지 오랫동안 끊겼던 법맥을 다시 이어가는 뜻 깊은 중창불사이자 우리 젊은 불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편역:성휴 스님 / 출처: '종교와 진실' '헬레니즘 불교와 불교적 기독교' 외

"취미생활도 구도과정의 일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❹



해리슨 포드 처사님에게 여기자가 이어 물었다.

"포드씨께선 불교수행자들이 그렇듯 매우 통제된 생활을 하시나 봐요?"

"글쎄요, 통제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지내신다면 특별히 집착하시는 것도 없겠죠?"

"저도 보통사람인데 왜 매달림과 머무름이 없겠어요?"

"아, 그렇군요! 집착이란 매달림과 머무름이죠. 그럼 표현을 좀 달리해서 여쭤보죠. 어떤 특별한 관심사나 취미를 갖고 계신지요?"

경비행기 몰고 홀로 여행 즐겨
창공에서 고요히 자아 성찰을

"네, 제가 특별히 몰두하는 건 비행기 조종입니다."

"아, 그 얘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왜 그걸 즐기시며 거기서 얻어지는 건 또 뭘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게 하늘은 또 다른 선방이며, 비행 역시 참선수행입니다. 선승들이 적막한 산사에서 삼매경에 들듯 저는 허공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아를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한 비행조종기술의 힘든 반복훈련은 마치 울력과 같은 구도행각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어릴 적에 손수 책상과 의자 등을 만드는 목공일을 즐겼듯 비행에 관련된 각종 기기의 작동도 프로급이다. 게다가 그저 하늘에 떠있는 게 좋다는 이유로 각종 헬리콥터도 능숙하게 조종하는 그는 자기가 사는 잭슨 홀 산악지대의 산림보안관들과 협력해서 산불화재 예방에도 나서고 조난자들을 수색 구출도 한다.

"난 제트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조종석의 계기판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너무 많아 마치 책상 앞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기분이거든요."

여섯 대의 구형 개인비행기를 가진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난 남들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구닥다리 기종이 아주 맘에 들어요. 린드버그 정도의 조종술이면 누구든 몰고 다닐 수 있는 털털이 날틀에선 따스한 정감이 베어나죠."

워낙 타고난 집중력에다 부단한 참선수행으로 심신이 두루 단련된 그는 어느 비행 전문지에 이런 말을 했다.

"특히 소형 경비행기는 색다른 맛이 있다. 언제든 내가 가고픈 데로 가서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으니까."

다시 기자가 묻는다. "그럼 주로 선생님 혼자서 비행을 하시나요?" 사생활도 영화 속의 인디아나 존스를 얼마간 닮은 그는 늘 천진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만년 소년이다.

"그래요. 모든 걸 툴툴 털어내고 혼자 훌쩍 떠난다는 건 진짜 느긋한 행복이죠."

조종사 해리슨 포드에게서 얼핏 생텍쥐페리를 떠올린다. <야간비행> <남방 우편기>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곱고 아련한 <어린 왕자>란 불후의 창공 문학을 펼치고 사라진 영원한 어린왕자 생텍쥐페리가 그러했듯, 해리슨 포드 또한 디지털적인 스피드보다는 아날로그적인 낭만을 즐기는 완벽한 자유인이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will practice everyday, ten or more hours a day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하루에 열 시간 이상 수련할 겁니다

A martial arts student told his teacher earnestly, "I am working very hard to attain your martial standards. How long will it take me to master it." The teacher's reply was casual, "Maybe, ten years." Impatiently, the student said, "But I want to master it faster than that. I will work even harder. I will practice everyday, ten or more hours a day if necessary. How long will it take then?" The teacher thought for a moment and said, "20 years at least."

무도 수련생이 사범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사범님의 무술의 경지에 이르고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범이 대수롭잖게 대답했다. "아마 십년쯤." 다급해진 수련생이 되받았다. "그런데 전 그보다 빨리 해내고 싶거든요. 더 열심히 날마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열 시간도 넘게 수련할 겁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사범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최소한 이십 년."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할리우드 여배우 코트니 러브
약물 중독 이기고 불자의 길로

마약중독과 기내소란, 양육권 및 저작권 분쟁에다 심지어 가장 옷을 못 입는 미국여류명사에 오르는 등 여러 악재에 치어온 여배우 코트니 러브는 최근 경건한 불자 스타인 올랜도 블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올랜도 블룸이 매일 자신과 함께 염불을 올리고 12단계의 불교식 영적 수행을 지도해주며 자신의 삶을 곧게 붙잡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당당한 불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내 아픈 몸과 마음을 새로이 만들어줘요."

지난해 그녀는 불교에 입문한 이래 극심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고 있다고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 2004년 영국의 국제 불교운동본부에서 불자로 첫걸음을 내디딘 올랜도 블룸은 평소에도 할리우드에서 가장 마음씀씀이가 넉넉하고 선량한 스타들 중 하나로 호평을 받는다.

자택에 법당과 불단을 모신 그는 쓰나미 등 각종 재난구제에도 거액을 희사하는 등 앞장서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시사행사에는 떠돌이 개를 데려오는 등의 인도주의적인 자비행으로 할리우드 연예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출처 : HSN

2008학년도 구룡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교육하는 범음범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 입학 안내 ••••••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6-5)
  053)982-1417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4일까지** (청강생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보우승가대학 범패과 교수. 전 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강주)
  강 사 : 자운스님.혜성스님(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연구과정 졸업)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오전 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 뜻있는 분 동참바람】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의 내용 ••••••

학년 \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초** : 목탁치는법.천수경.도량석.종성 **예불** : 향수해례.사성재.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퇴공.각단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외 **기타** : 장의편.방생의식.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범패)** 할향.등게.합장게.고향게.개게.쇄수게 복청게(천수다라니)도량게.참회게. 천수바라.도량게.요잡바라.등 (바라.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의식 본과정(재채.안채비.사물다루는과정)**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단불공(지장청외) 중단퇴공.관음시식.봉송회향.공덕게 ※ 다게작법.요잡바라.관욕바라.화의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욕건이.운심게.가지게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바라지.목탁.태징.북.요령) 2. 작법고급과정(사방유신.기경이.향화게.법고무.옴남) 3. 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 특강 : 점안의식.생전생칠 예수재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학장 원봉